

영광 낙월도에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 개소

총 사업비 24억원 투입...전남환경 적합 꿀벌 증식·보급

농촌진흥청 육종한 신품종 여왕벌 젤리킹 받아 보급할 계획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꿀벌 실종 사태 등의 위기에서 꿀벌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8일 영광 낙월도에서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 개소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영광군수와 정용재 한국양봉협회 전남도지회장, 박주호 한국한봉협회 전남지회장, 방혜선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장, 꿀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국비와 도비 24억원이 투입된 꿀벌 증식장은 전남환경에 적합한 꿀벌자원의 증식과 보급을 위한 연구시설로, 양봉사와 관리동, 분석실 등을 갖춘 386㎡ 규모다.

영광 낙월도는 봉군(벌 무리)이 없고, 꿀을 모으는데 필요한 밀원식물이 풍부해 꿀벌 품종의 유지·관리에 제격이다.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이 육종한 신품종 여왕벌 젤리킹을 받아 교배와 증식 후 양봉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젤리킹은 재래종 꿀벌 대비 로얄젤리 함량(10-HDA)이 31.3% 높다.

김행란 원장은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 개소는 전남 1호 여왕벌 생산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올해 고품질 로열젤리 생산 젤리킹의 농가 공급을 시작으로 전남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 낙월도 뿐만 아니라 충남 보령 삼시도, 경남 통영 사랑도, 전북 군산 연도, 진도 가사도 등 5개 지역에 조성되고 있다.

“바다의 힘 전기로” 신안군, 조류발전 메카로 도약한다

신안군이 바다물의 흐름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조류발전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신안군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신안군 조류발전사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신안군 일원의 조류발전 자원을 분석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모색해 지역 내 부존 에너지 자원의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지난 2022년 4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신안군 조류발전사업 육성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된다. 조류발전의 지역 여건 분석과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조류에너지 잠재량은 약 12GW로 이 중 약 90%에 해당하는 10GW가 신안군 등 전남 서남권에 부존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안군은 풍부한 조류 자원을 바탕으로 기후 변화와 에너지 자원 고갈 문제에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가 날씨와 시간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기적이고 규칙적인 특성을 지닌 조류발전에도 주목해 왔다.

목포시, ‘목포 청년쉼터 다락(多樂)’ 개관 차질없이 준비

목포시가 청년의 힐링 및 창업을 위해 조성한 ‘목포 청년쉼터 다락(多樂)’(이하 다락)의 6월 개관을 앞두고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면적 299.84㎡, 지상 2층 규모로 은금동 3-9번지에 위치한 다락은 지역청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넘어 창업을 위한 공간도 제공하는 시설로 1층은 카페, 2층은 소통공간(회의실, 북카페)으로 각각 조성됐다.

시는 지난 2021년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해 당초 이로근린공원 내에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컨테이너가 공원법상 설치 불가능한 부적합 건축물임에 따라 부지를 현재 위치로 변경했다. 이후 구조를 컨테이너에서 철근콘크리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시비 약 9억 원을 추가 투입했다.

이와 함께 시는 목포시의회 청년의원, 청년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립 및 운영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한편 도비 1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 12월 말 환경개선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올해에는 건축물 등기를 완료하고 BF(Barrier Free, 무장애) 본인증 승인 심사를 받았다. 시는 현재 카페 운영자를 공개 모집 중이며 운영자를 선정하면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다락이 청년을 위한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쉼터이자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거점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나비여신이다”...함평나비축제 퍼레이드쇼 인기



함평나비축제에서 나비를 주제로 한 퍼레이드쇼가 매일 펼쳐지고 있어 어린이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28일 함평군에 따르면 ‘나비, 황금박쥐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5월6일까지 이어지는 제 27회 함평나비대축제에서 매일 나비 판타지 퍼레이드쇼를 선보이고 있다.

올해 나비 판타지 퍼레이드쇼 기획과 연출은 지난해에 이어 송원대학교 공연예술학과 문복주 교수가 맡았다.

나비 판타지 퍼레이드쇼는 나비의 문광장에서 나비여신, 나비요정과 황박이·뽀뽀 등이 노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며 관광객과 함께 중앙광장까지 행진한다.

이어 중앙광장을 무대로 나비캐릭터, 나비여신, 나비요정, 미러맨&젤트맨, 레이디스,

에너지틱맨이 순서대로 30여 분간 공연 후 관람객과 사진촬영 시간을 갖고 있다.

퍼레이드쇼는 ▲4월25-30일, 5월2일에는 오후 2시30분 ▲5월1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30분 ▲5월3일 오전 11시30분 ▲5월4일 오후 2시30분 ▲5월5일 어린이날과 5월6일에는 오전 11시30분과 오후 2시30분에 개최한다.

이상의 군수는 “올해 함평나비대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나비 판타지 퍼레이드쇼가 특히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며 “축제 기간 꼭 방문하시어 나비판타지 퍼레이드쇼를 포함한 다양한 축제 콘텐츠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군 농가 일손 도울 몽골 계절근로자 95명 입국

2023~2024년 몽골 현지 업무협약 결실...인권교육 등 받고 농가에 투입해 부족한 일손에 힘 보태



몽골 출신의 계절근로자 95명이, 29일 농번기 영암군에서 일하기 위해서 입국했다.

몽골 계절근로자의 이번 입국은 2023~2024년 영암군이 발원바얀울란군과 보르노르군에서 각각 체결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이 결실을 맺은 것.

특히, 지난해 우승희 영암군수 등 영암군 방문단은 몽골 현지에서 운드라빌레 버르노르군수 등과 영암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은 몽골에서 교육을 받고 심사를 거쳐 선발된 우수 인력들이다. 이들은 입국 즉시 산호제일병원과 목포시의료원에서 검사를 받고, 영암군청에서 열린 입국설명회에 참여했다.

영암군은 계절근로자·고용주 준수사항, 인권침해 방지 등 인권교육을 실시한 다음 계절근로자와 고용주를 연결해 줬다.

몽골 계절근로자들은 고구마, 고추 등 식량 원예작물 재배 현장에 투입돼 부족한 농촌 일손에 힘을 보태 것으로 기대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봄 농번기를 맞아 입국한 몽골 계절근로자들을 환영한다. 영암 농업인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길 바란다. 계절근로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암군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에서는 2025년 4월 현재 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형 122명, 업무협약 체결형으로 98명 등 총 220명이다.

올해 5월 330명, 6월 400명 등 상반기에 총 950명의 계절근로자가 영암군에서 일할 예정이다.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